

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and Actual Services of Ancestral Rite

상지대학교 생활과학산업학과
강사 김인옥
교수 안혜숙

Dept. of Home Science & Industry, Sangji Univ.

Lecturer : Kim, In Ok

Professor : Ahn, Hye 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V.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I.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was examined about consciousness and actual service, functions of ancestral rite in modern society. In order to study, the questionnaires for 401 university students were used and personal interviews with 14 as 7 female, 7 mal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male's consciousness and actual service was significant higher than female's about the traditional ancestral rite. The religion was affected significant variable in ancestral rite. When the family hold many performs and students are participate in ancestral rite many times, they are positive about traditional ancestral rite. On the functions of ancestral rite the students thought the ancestral rite influenced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to promote mutual family membership.

주제어(Key Words): 제례의식(ancestral rite consciousness), 제례수행(ancestral rite actual service), 제례의 현대적 기능(function of ancestral rite)

Corresponding Author: In-Ok Kim, Department of Home Science and Industry, Sangji University 660 Woosan-dong, Wonju 220-702, Korea
Tel: 82-33-730-0490 E-mail: inokggum@orgio.net

I. 서론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생활의 network로 누구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 안에서 가족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그에 적응하고자 한다.

현대사회 가족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가족간 갈등과 가족 문제를 풀어나가며 대안적이며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현대사회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으며, 개개의 가족 구성원은 개별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일가(一家)가 한 집 혹은 한 마을에 살며,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공유하며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의식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강한 연대감을 갖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 특히 제례는 본래 자신의 뿌리이며 근본에 보답하고 돌아가신 선조의 뜻을 이어받는 조상숭배 사상이 기본이 된다. 제례를 통해 현재 자신의 가족과 가정 뿐 아니라 위로는 조상을 받들며 아래로는 자손들에게 선조의 업적과 교훈을 전수시키며, 개인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있음을 일깨우도록 하였다. 이는 곧 가도(家道)와 가풍(家風)을 마련하는 기틀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가족 및 친척간 결속을 다지는 근간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고유한 전통적 가정문화를 이어가고 가족 및 친척간 유대관계를 지속시켜줄 제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오늘날의 대학생은 소위 M세대(moving 혹은 mobile)로 불리어 지기도 한다.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하여 예측불허의 행위들이 하나의 행동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이동이 잦은 대학생 집단에게 전통 가정의례인 제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서 차세대 가정을 이끌어갈 대학생의 전통 생활문화에 대한 감각 혹은 의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가정의 제례문화를 간접적으로 조명해보는 토대가 되며, 가정 내 제례에 대한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전통제례의 고찰

1) 문헌에 나타난 제례

전통 제례에 대한 의식과 수행에 관한 내용은 조선조의 대표적 가례서라고 할 수 있는 『격몽요결』, 『가례집람』, 『사례편람』이 기초가 된다.

『격몽요결』(1577)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저서 율곡전서(栗谷全書)속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율곡전서는 모두 38권으로 되어 있으며 격몽요결은 27권에 들어있다. 그 내용은 전체 10장 89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 제의초(祭儀抄)에는 제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1599)은 10권 5책이고 책머리에 도설(圖說) 1책을 붙여 10권 6책으로 편집되었다. 사계는 서문에서 밝혔듯이 제가(諸家)의 설을 모아 이를 편집하여 『가례집람』이라 하였는데, 책머리의 가례총도(家禮總圖)는 제례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1685년 송시열의 후서(後序)가 붙은 상태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사례편람』은 도암 이재가 주자(朱子)의 『家禮』를 준칙으로 하고 선현의 예설(禮設)을 참작하여 의례의 잘잘못을 바로잡아 편저로서 필사본으로 전하다가 그의 후손 문간공(1778-1828)과 문정공(1780-1849)이 각각 그 내용을 보강하고 도식까지 붙여 헌종 10년(1844)에 윤석 조인영(1782-1850)의 발문을 덧붙여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상의 고 문헌 중 본 연구는 『격몽요결』의 상제장(喪制章)과 제사장(祭祀章), 부록 제의초와 『가례집람』의 제례장(祭禮章), 『사례편람』의 제례장(祭禮章)에서 관련 내용을 출처하여 기초자료로 삼았다. 문헌에 나타난 제례의식과 수행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인옥 외 1998)

첫째, 제례의식과 관련하여 조선조 유학자들의 대표적 예서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과거 전통사회에서 제례는 가정의 생활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제례는 살아 계실 때 못다한 효도를 계속함이다.' 하여 돌아가신 선조에게 박하게 한다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경계하여 가르치고 있다. 『격몽요결』에 '무릇 제주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할 뿐이니, 집이 가난하면 집안 형편에 맞게 해아려 제사지내고 그리고 병이 나면 근력을 짐작해서 제사지내고 재력이 있어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면 마땅히 그 의식에 따라야 한다' 하였다. 즉 재력과 근력을 짐작하여 집안의 형편에 맞게 제사지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제(忌祭)를 행함에 있어 『격몽요결』 『가례집람』 『사례편람』에 '자손이 번갈아 돌려가며 제사지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며, 비록 여행 중이라도 기일이 되면 그 예를 다하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혹 자손들이 많이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는 그 음식을 해 가지고 와서 장손이 제사를 지낸다' 하였으며, 『사례편람』에는 '종가의 종자(宗子)만이 사당을 모실 수 있고 제사를 주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제사의식의 내용에는 장자 중심의 조상숭배의식이 짙게 내재되어 있었다.

둘째 제례수행의 전반적인 내용은 금기와 절제, 청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제주이하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제사 전에 목욕재계하여 제사에 임하도록 한다. 문헌에는 공통적으로 제사 당일 이 되면 모두 변복(變服)을 하는데 제사 대상이나 제주의 관직 유무에 따라 제복(祭服)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인의 경우에는 부모 제사시 화려하지 않은 옷에 특계거식(첩지에 민족두리)이 기본적인 차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격몽요결』에는 '제사 전날 주인은 모든 남자 제관과 집사를 거느리고 정침에 물을 뿌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의자와 탁자를 씻고 훑쳐 깨끗하게 마련토록 힘쓴다' 하였으며 기제 때 '제수에 있어서 음식을 갖추는 일은 시제 때와 같이 하되 과일과 탕은 세가지를 넘지 않으며 형편에 따라 더 간략히

할 수도 있다' 하며 시제와 차이를 두고 있다. 또한 『사례편람』에 '주부는 식구를 인솔하여 배자를 입고, 제기를 닦고 술을 씻고 제수를 준비하되 정결하도록 한다. 제사지내기 전 먼저 먹거나 개나 고양이 나 쥐 등이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한다' 하였다. 제사음식에 관하여 『가례집람』에는 '제사를 지낸 후 제사음식은 빈객을 대접하였는데 이것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 까닭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제례수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제사지내는 장소는 정침(正寢: 안채내 제사 지내는 방)으로 제사 전 미리 집안 밖과 정침을 청소하고 의자와 탁자를 닦아 정결히 한 후 제사에 임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제사음식에 대한 청결과 절제를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기일(忌日)이 되면 공통적으로 제주(祭主)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금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격몽요결』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남자는 저녁에 사랑에서 지낸다' 하였고, 『가례집람』에 '기일에 자손들은 술과 고기를 먹어서도 안되고 먼 친척이라도 소식(蔬食)을 해야한다' 하였다. 또한 『사례편람』에도 유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기일이 되면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저녁에 남자는 바깥채에서 잔다'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음식과 행동의 절제와 금기로 집약된다.

2) 선행연구 분석

제례의식과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례에 대한 주 조사대상은 주부들이었다. 제사의식에 있어 임옥재(1981)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에 따라 제사의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종교별 차이가 나타나 불교와 무교일 때 제사의식이 높았다. 며느리 서열에 따라서는 큰며느리가 그 외의 며느리보다 전통적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길표(1982)의 연구와 한경순(198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여 주부들의 제례의식이 연령과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홍현주(1986)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사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젊은 연령층보다 높은 연령층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낮을수록, 그리고 불교신자인 경우 제사에 대해 보다 전통적 의식을 보였다. 박순천(1986)의 연구에서는 제례의식에 대한 주부의 학력, 종교가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고, 박수정(1989)의 연구에서는 시대와 본인의 종교가 제례 행례 의식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재숙 외(1989)의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주부들의 제례의식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례에 관한 기본의식과 연령, 학력이 주요변인으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가 그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통과의례 의식에 대해 조사한 손유미(1990)의 연구 결과 연령, 학력, 종교, 주거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정우 외(1990)의 연구에서는 제례의식에 있어 주부들의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종교, 기혼자녀 유무가 주요 변인이었다.

제례의식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반면 제례의 수행에 대해서는 미진한 편이다. 제례수행과 관련하여 박수정(1989)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유의성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정우 외(1990)의 연구에서는 제례행동이 주부들의 연령,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들의 후속 연구(1993)에서는 주부의 직업유무만이 유의성 있는 변인으로 즉 취업한 주부들의 제사수행 수준이 낮았다.

한편, 제례행례와 관련하여 조사된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제사 형식에 있어 전통식이나 불교식으로 제사를 모시는 경우 제례의식 및 수행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의 제사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봉사범위가 높을 때 제례의식 및 수행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부들 중심의 제례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 학력, 머느리순위, 종교 그리고 취업여부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례의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변인을 찾아 볼 수 없었다.

2. 제례의 기능

제례의 기능이란 현대사회에서 제례가 갖는 고유한 역할 내지는 구실을 말한다. 전통 제례의식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현대사회 제례의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다음의 선행 연구 자료가 토대가 되었다.

제례의 기본의식에 대하여 조사한 이길표(1982)의 연구에서 제례의 현대적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10항목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즉 '제사란 조상에 대한 종교의식이므로 필요하다', '제사는 보다 나은 우리의 생활을 지향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과 함께 '제사는 가문에서 전통으로 계승해야한다'와 '제사를 지냄으로써 가문의 윤리적 질서가 지켜진다' 등으로 가문중심의 윤리적 질서의 기능이 포함되었다. 또한 '제사는 조상에 대한 추모의 뜻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원근의 친척들이 모여 화목을 이룬다', '조상을 숭배하는 생활을 갖도록 하여 자녀들의 교육상 좋은 본보기가 된다' 등의 내용은 친척간 화목이나 교육의 기능을 다룬 내용이다.

제례의 기능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는 이현숙(1983)의 연구에서는 ① 조상숭배의 기능 ② 친척간 친목도모를 위한 혈연강화의 기능 ③ 회연의 기능 ④ 교육의 기능 ⑤ 조상신을 섬기는 종교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홍현주(1986)는 제사에 대한 현대적 기능에 대하여 조상숭배, 협동, 회연, 교육, 종교, 의사소통, 혈연강화 등 7가지로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제례의 기능을 요인분석한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제례의 기능 요인이 ① 교육 및 효의 기능 ②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 ③ 종교적 기능 ④ 생활철학의 기능으로 추출 분석되었다. 교육 및 효의 기능은 조상과 부모에게 제례를 행함으로써 그 분들에 대한 교훈과 업적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효를 통한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산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이란 가족이나 친척이 제례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음복을 하며 결속을 다지는 기회

로 삼고 가족간 유대와 화합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종교적 기능은 돌아가신 조상이 현세의 자손들을 항상 돌봐준다는 믿음으로 정신적 위안을 얻고자 함을 의미한다. 생활철학의 기능은 종교의 차원을 벗어난 현실적 의미에서 조상의 훌륭한 교훈이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고문헌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전통제례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및 수행, 제례의 기능 요인의 정도와 제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전통 제례의식 및 수행 측정 을 위한 조사도구로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사계 김장생의 『가례집람』, 도암 이재의 『사례편람』 등 禮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선행연구(이길표 1982; 박수정 1989; 이정우 외 1990)를 참고로 구성 하였다. 제례의식에 관한 문항에는 '제사 지내는 일은 자식된 자로서 가장 정성을 다할 일이다.' '돌아가신 분을 제사지내는 것은 우리 나라 미풍양속이므로 계승해야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례수행에 관한 문항에는 '나는 목욕을 하고 제사에 임한다.' '나는 제사 시에는 평상시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제사 옷을 따로 준비하여 입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례의 기능에 관한 문항은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하여 분류된 효 및 교육의 기능, 친목 및 회연의 기능, 조상숭배의 기능, 생활철학의 기능을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효 및 교육의 기능에는 '제사를 통해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정을 품는다.' 와 '제사는 살아 계실 당시의 효의 연장이다', '제사지낼 때 조상을 숭배하는 생활을 갖도록 하여 자녀들의 교육상 좋은 본보기가 된다',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산 교육이 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례가 인간생활의 근본이 되는 효에 대한 윤리의식이 현대사회에서도 강하게 반영된 바를 강조하고 있다. 친목 및 회연의 기능에는 '우리 집안은 제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집안은 제사지낸 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더 화목해진다.' '제사지내는 날에는 친척간에 서로의 일체감이 생긴다.', '추석과 설과 같은 명절제사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소박한 잔치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일체감을 갖으며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제사를 지낼 때로 특히 명절에는 일가친척이 모여 소박한 잔치와 친척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종교적 기능은 '조상이 보살펴주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걱정이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조상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조상을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나와 우리집안은 항상 조상의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제사를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철학의 기능은 '조상에 대한 정성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는 제사는 미신이 될 수 있다.' '제사는 현실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생활철학이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본 조사에서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 제례의식은 .77, 제례수행은 .83, 현대적 기능은 .92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후 제시된 결과의 절적 보완과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시 조사도구는 설문문항을 기초로 하여 반 구조화된 면접도구를 이용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처리

본 조사는 서울 근교의 K대학, S대학, Y대학의 남녀 대학생에게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38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여 401부가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비록 응답자의 가정에서 제례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집안 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각 종교의식 포함)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으로 통계 처리하여 백분율, 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을 하고, 추후검증으로 DMR test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는 2002년 5월20일부터 약 10일간 14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면접하였다. 설문문항을 기초로 만들어진 면접도구에 의해 질문하였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녹음기를 이용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조사에 응답한 대학생의 일반적 사항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제례 행례 변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한 대학생의 성비는 남학생이 66.1%, 여학생이 33.9%로 남학생의 응답율이 높았다. 연령은 조사대상자가 대학생들이므로 20-23세(70.5%)에 집중되어 있고, 휴학과 군 제대 후 복학 등 학생들의 유동적 활동으로 23세 이상인 집단이 25.1%정도 되고 있다. 응답한 대학생들의 학년은 2

학년(42.2%), 3학년(23.1%), 1학년(17.8%), 4학년(16.8%)의 순 이었다. 현재 본인의 종교는 무교(39.8%)와 기독교(25.6%)가 다소 높은 편이고, 다음으로 불교(15.1%)와 천주교(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의 종교는 불교(29.8%), 무교(26.8%), 기독교(25.6%)등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응답한 대학생들의 출생순위는 장남(장녀)이 46.2% 이고, 차남(차녀)은 39.6%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8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확대가족은 12.7%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제례 행례와 관련하여 그 가정의 제사형식에 대한 질문에서 소위 '전통식'이라 일컫는 유교형식으로 제사지내는 가정이 57.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추도식은 10.0%, 불교식은 9.8%, 연미사는 2.5%, 기타 종교의식이 4.8%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 가정 상황에 따라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15.0%나 되었다. 현재 지내고 있는 제사의 종류는 차례가 76.5%로 가장 많았고, 기제사는 67.5%나 되었다. 그러나 시제(7.0%)와 불

〈표 1〉 사례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사례14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남	남	남	남	남	남	남
형제순위	장녀	장녀	차녀	차녀	장녀	장녀	외동	차남	차남	장남	장남	장남	장남	차남
집안종교	불교	불교	천주교	무교	불교	불교	불교	무교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무교
본인종교	무교	불교	천주교	무교	불교	불교	무교	무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무교	무교
부(父)의 형제순위	장남	차남	차남	차남	장남	장남	장남	장남	장남	차남	차남	장남	외동	차남
제사형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추도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유교식
봉사대상(父 중심)	조부모	부	부모, 형님	조부모, 부모, 형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부모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 처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증조부모, 부모	조부모	부	조부모
본인참석 여부	모든 제사 참석	차례만 참석	자주 참석하지 않음	차례만 가끔 참석	모든 제사 참석	모든 제사 참석	모든 제사 참석	모든 제사 참석	모든 제사 참석	참석하지 않음	모든 추도식 참석	모든 제사 참석	모든 제사 참석	모든 제사 참석
제사수행 여부*	○	× (큰택)	× (큰택)	× (장손)	○	○	○	○	○	○	× (큰택)	× (큰택)	○	○

* 본인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의 여부

천위제(0.3%)를 지내는 경우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제사주관자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그 가정의 제사를 맡아들이 지내는 경우가 54.3%, 종가의 종손이 지내는 경우는 31.1%로 약 85%이상의 가정에서 장자(長子)가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기타(12.3%), 차남(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사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본인 가정에서 제사가 있는 경우가 43.6%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7.4%였다. 그러나 본인의 가정에서 제사를 수행하지 않을 뿐 그 맥내 제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한 대학생의 부(父)를 중심으로 제사수행범위는 '조부모까지'가 46.4%로 가장 많았고, '중조부모까지'(27.8%), '고조부모까지'(14.5%), '부모'(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본인이 집안 제사에 참석하는 범위(父를 중심으로)는 '조부모까지'가 51.8%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조부모까지'의 참여도 22.8%나 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13.0%), '고조부모까지'(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례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사례10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목사이신 큰아버지의 주도로 추도식 형태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례5, 7의 경우 고조부모이하 모든 선조들의 제사에 참석하고 있었고, 사례2, 3, 4는 큰댁에서 제사를 모시며 남자 형제들만 제사에

주로 참석하는 관계로 본인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사례9는 본인의 가정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으나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이므로 제사참여를 거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가정에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유교식의 제사를 따르고 있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전통제례 의식 및 수행에 대한 전반적 경향

1) 전통 제례의식과 수행의 정도

문헌을 토대로 작성된 전통제례의식과 수행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대학생의 제례에 대한 의식정도는 전체평균 3.42로 전통제례의식의 긍정적 반응을 볼 수 있었다(<표 2> 참조). 각 문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M=4.27)에 대한 의식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식된 자로서 제사는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한다'(M=3.98)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반면 '집안에 우환이 있더라도 제사 지낼 만하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야 한다'(M=2.58)와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지내야 한다'(M=2.30)에서는 제례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강제성을 띤 제례규범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표 2> 대학생의 전통제례 의식정도

제례의식	M(SD)
1. 자식된 자로서 제사는 가장 정성을 다해야 한다.	3.98(0.89)
2. 남자는 아버지를 따라 여자는 어머니를 따라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며 도와야 한다.	3.45(1.11)
3. 돌아가신 분을 제사지내는 것은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이므로 계승해야 한다.	3.62(0.98)
4. 돈을 꾸어서라도 제사는 잘 지내야 한다.	3.82(0.94)
5.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만일 병이 있거나 우환이 있더라도 제사 지낼 만 하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야 한다.	2.58(1.03)
6. 정성을 다해 제사지내고자 할 때 제상 차리는 법과 그 절차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3.70(0.93)
7. 전통제례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조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3.50(0.95)
8.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지내야 한다.	2.30(1.00)
9. 나는 사후에 자손이 나를 잊지 않고 제사지내주길 바란다.	2.91(1.12)
10.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4.27(0.85)
전체	3.42(0.56)

〈표 3〉 대학생의 전통제례 수행정도

제례의식	M(SD)
11. 나는 목욕을 하고 제사에 입한다.	2.59(1.13)
12. 나는 제사 시에는 평상시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거나 제사 옷을 따로 준비하여 입는다.	2.74(1.15)
13. 나는 제사 지내기 전 제사음식을 맛보거나 손대지 않는다.	3.07(1.28)
14. 제삿날에는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며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	3.11(1.23)
15. 나는 제사 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먼저 먹는다.	3.21(1.17)
16. 제사 시 집안 청소나 부엌일 등 그밖에 부모님을 도와 제사준비에 참여한다.	3.55(1.02)
17. 제사 지낸 후 남은 음식을 반드시 음복한다.	3.52(1.09)
18. 나는 제사 전 머리 빗고 정결한 몸가짐을 한다.	3.16(1.05)
19. 나는 제사 지내는 날에 웃거나 떠들지 않으며 경건하게 보낸다.	2.74(1.08)
20. 나는 제사 지내는 절차와 제상 차리는 법을 안다.	2.59(1.11)
전체	3.04(0.71)

제례수행에 관한〈표 3〉의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제례 수행정도는 평균 3.04로 제례의식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례수행 내용 중 특히 '목욕을 하고 제사에 입한다.' (M=2.59)와 '제사 지내는 절차와 제상 차리는 법을 안다' (M=2.59), '제사 옷을 따로 준비하여 입는다' (M=2.74) '제삿날 웃거나 떠들지 않으며 경건하게 보낸다' (M=2.74) 등에서 낮게 나타나 제사절차와 의복 수행의무가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제사음식에 대한 규범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 제사지낸 후 남은 음식은 반드시 음복을 하고(M=3.52) 제사 전에는 배가 고평도 음식을 먼저 먹지 않았으며(M=3.21), 제사지내기 전 제사음식을 맛보거나 손대지 않는다(M=3.07)의 문항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제사 시 집안 청소나 부엌일 등 제사준비에 참여한다'는 평균 3.55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제례 수행수준은 제례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제례의식은 3.36, 제례수행은 3.59로 의식에 비해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전통 제례의식과 수행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전통제례의식은 대학생의

연령, 학년, 본인과 가족의 종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참조)

본 조사에서 대학생의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전통제례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있어서는 본인이 불교신자인 경우(M=3.60)와 가족의 종교가 불교인 경우(M=3.56) 모두 전통적 제례의식은 높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길표: 1982, 박순천: 1986, 홍현주: 1986, 박수정: 1989)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전통제례의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보는 기독교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제례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연령, 학년, 본인의 종교, 가족의 종교, 성별이었다. 즉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제례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과 가족의 종교가 불교인 집단이 타종교 집단보다 제례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적 제례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례의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대학생의 출생순위, 가족형태는 제례의식 및 수행의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3) 제례 행례 변인별 전통 제례의식 및 수행
제례 행례 변인별 전통 제례의식은 제 영역에서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전통 제례의식 및 수행정도

변인	집단	제례의식		제례수행	
		M	D	M	D
연령	19세 이하	3.17	B	2.65	B
	20세-23세	3.39	AB	3.00	A
	24세 이상	3.51	A	3.23	A
	F값	3.19*		8.25***	
학년	1학년	3.29	B	2.89	B
	2학년	3.35	B	2.99	AB
	3학년	3.46	B	3.13	A
	4학년	3.63	A	3.19	A
	F값	5.18**		2.95*	
본인의 종교	기독교	3.21	B	2.78	BC
	천주교	3.47	AB	3.16	AB
	불교	3.60	A	3.28	A
	무교	3.47	AB	3.10	ABC
	기타종교	3.31	AB	2.74	C
	F값	6.23***		6.98***	
가족의 종교	기독교	3.22	B	2.80	BC
	천주교	3.46	A	3.12	AB
	불교	3.56	AB	3.21	A
	무교	3.41	AB	3.05	ABC
	기타종교	3.31	AB	2.74	C
	F값	6.28***		5.38***	
성별	남	3.43		3.10	
	여	3.26		2.82	
	t값	3.36***		4.44***	

*P<.05 **P<.01 ***P<.00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참조) 제사 형식에 있어 불교식으로 지내는 집단의 제례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사종류 중에서는 기제사, 시제 및 차례를 지내는 집단의 제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안 내 제사주관자가 종가의 종손이나 만아들인 가정의 대학생이 제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사수행범위가 높을수록 즉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집단의 제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제사 참석범위에서도 참여 범위가 높을수록 제례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제례수행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제례의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제사를 비롯하여 가정 내 모든 제사를 지내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는 제례수행정도가 높고, 본인의 가정에서 제사지내는 경우 제례 수행정도가 더 높았다. 제사 수행 범위와 제사 참석범위에서는 그 범위가 높을수록 즉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고 참석할 때 수행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사 참석범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낮을 때 주부들의 제례의식과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난 김인옥(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제례의식과 수행에 있어서 전통적 제례규범이 일부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5〉 제례 행례 변인별 전통 제례의식과 수행정도

변 인	집 단	제례의식		제례수행	
		M	D	M	D
제사형식	유교식	3.47	AB	3.12	AB
	불교식	3.52	A	3.29	A
	추도식	3.20	BC	2.72	BC
	연미사	3.19	C	2.70	C
	특정 형식 없음	3.42	ABC	2.96	ABC
	기타 종교식	3.20	C	2.68	C
	F값	2.69*		4.69***	
제사종류	기제사	유	3.44		3.04
		무	3.13		2.72
		t값	3.86***		3.25**
	차례	유	3.41		3.02
		무	3.10		2.67
		t값	2.56*		2.63**
	시제	유	3.41		3.10
		무	3.34		2.94
		t값	2.08*		2.06*
	기타	유	2.92		2.46
		무	3.40		3.00
		t값	-2.69**		-2.59*
제사주관자	증가(중손)	3.49	A	3.08	A
	말아들	3.45	AB	3.09	A
	둘째아들	3.40	AB	3.03	A
	기타	3.18	B	2.68	B
	F값	3.89**		4.72**	
본인 가정의 제사수행여부	유	3.47		3.13	
	무	3.23		2.78	
	t값	4.15***		5.09***	
제사수행범위 (父를 중심)	부모까지	3.28	B	2.91	A
	조부모까지	3.37	B	3.02	A
	증조부모까지	3.58	A	3.12	A
	고조부모까지	3.56	A	3.25	B
	F값	5.07**		2.23*	
제사참석범위 (父를 중심)	부모까지	3.21	C	2.76	C
	조부모까지	3.44	B	3.01	B
	증조부모까지	3.56	AB	3.11	B
	고조부모까지	3.67	A	3.37	A
	F값	6.77***		6.06***	

*P<.05 **P<.01 ***P<.001

2. 제례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1) 제례의 기능인지 정도

현대사회 제례에 대한 기능인지 정도를 측정하
결과 대학생들은 전체 영역(전체평균 3.29)에서 제
례에 대한 제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6〉참조) 대학생들에게 있어 제례는 친목 및 회
연의 기능(M=3.65)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효 및 교육의 기능(M=3.43), 생
활철학의 기능(M=3.12)순 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조상숭배의 기능(M=2.92)은 보다 낮게 평가
되고 있었다.

〈표 6〉 제례의 기능정도

제례의 기능		
요 인	M	SD
효 및 교육기능	3.43	0.81
친목 및 회연	3.65	0.84
조상숭배	2.92	0.91
생활철학	3.12	0.75
전 체	3.29	0.71

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제례의 기능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제례의 기능을 보면 대학
생의 학년, 본인과 가족의 종교,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표 7〉에 의하면 하위영역 중 효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제례의 기능

변 인	집 단	효 및 교육		친목 및 회연		조상숭배		생활철학	
		M	D	M	D	M	D	M	D
연령	19세 이하	3.20		3.61		2.72		2.90	
	20세-23세	3.40		3.63		2.88		3.12	
	24세 이상	3.56		3.73		3.06		3.16	
	F값	2.06		0.65		1.87		0.90	
학년	1학년	3.24	C	3.45	C	2.75	B	3.02	B
	2학년	3.35	BC	3.59	BC	2.79	B	3.02	B
	3학년	3.54	AB	3.76	AB	3.06	A	3.25	AB
	4학년	3.71	A	3.87	A	3.24	A	3.32	A
	F값	4.92***		3.84**		5.74***		4.03**	
본인의 종교	기독교	3.13	B	3.43	B	2.50	B	2.92	B
	천주교	3.46	AB	3.61	AB	3.12	A	3.27	A
	불교	3.69	A	3.91	A	3.25	A	3.31	A
	무교	3.55	AB	3.71	AB	3.01	A	3.15	A
	기타종교	3.42	AB	3.61	AB	3.47	A	3.19	A
	F값	6.32***		3.47**		10.82***		3.61**	
가족의 종교	기독교	3.13	B	3.42	B	2.50	B	2.96	C
	천주교	3.48	AB	3.65	AB	3.06	AB	3.22	AB
	불교	3.68	A	3.87	A	3.18	AB	3.30	A
	무교	3.43	AB	3.62	AB	2.92	BC	3.02	AB
	기타종교	3.38	AB	3.61	AB	3.47	A	3.09	A
	F값	6.42***		4.03**		9.57***		3.64**	
성별	남	3.44		3.60		2.94		3.14	
	여	3.23		3.49		2.69		2.93	
	t값	2.99**		1.55		3.10**		3.07**	

*P<.05 **P<.01 ***P<.001

〈표 8〉 제례 행례 변인별 제례의 기능

변인	집단	효 및 교육		친목 및 회연		조상숭배		생활철학	
		M	D	M	D	M	D	M	D
제사형식	유교식	3.50	AB	3.69	A	2.96	ABC	3.16	AB
	불교식	3.68	A	4.03	AB	3.21	A	3.37	A
	추도식	3.17	BC	3.49	B	2.55	C	2.86	B
	연미사	3.43	AB	3.50	B	3.07	AB	3.33	AB
	특정 형식 없음	3.40	AB	3.52	B	2.86	ABC	2.98	AB
	기타 종교식	2.80	C	3.20	B	2.61	BC	2.88	B
	F값	4.08**		3.18**		2.78*		2.69*	
제사 종류	기제사	유	3.46		3.68		2.85		3.09
		무	3.02		3.22		2.63		2.84
		t값	3.68***		3.98***		1.49		2.07*
	차례	유	3.42		3.63		2.84		3.09
		무	2.98		3.20		2.44		2.73
		t값	2.38*		2.58*		2.68**		2.21*
	시제	유	3.43		3.58		2.81		2.93
		무	3.33		3.54		2.79		3.03
		t값	1.82		1.85		1.54		0.68
	기타	유	2.76		2.84		2.37		2.59
		무	3.40		3.63		2.84		3.07
		t값	-2.18*		-3.00**		-1.44		-1.41
제사주관자	종가(종손)	3.48		3.83	A	2.84		2.98	
	만아들	3.49		3.67	A	2.94		3.16	
	둘째아들	3.46		3.66	A	2.79		3.28	
	기타	3.16		3.24	B	2.71		2.91	
	F값	2.27		5.77***		1.19		1.74	
본인가정에서 제사수행	유	3.47		3.62		2.92		3.13	
	무	3.20		3.47		2.69		2.93	
	t값	3.24**		1.72		2.68**		2.72**	
제사수행범위 (아버지 중심)	부모까지	3.31		3.48		2.80	B	2.93	B
	조부모까지	3.40		3.65		2.83	B	3.02	B
	증조부모까지	3.58		3.74		3.02	AB	3.31	A
	고조부모까지	3.63		3.89		3.18	A	3.34	A
	F값	2.39		2.28		2.72*		5.75***	
제사참석범위 (아버지 중심)	부모까지	3.22	B	3.41	C	2.56	B	2.89	C
	조부모까지	3.47	AB	3.73	AB	2.91	A	3.12	BC
	증조부모까지	3.52	A	3.63	BC	3.08	A	3.21	AB
	고조부모까지	3.75	A	4.00	A	3.22	A	3.43	A
	F값	3.45*		4.37**		5.10**		4.45**	

*P<.05 **P<.01 ***P<.001

및 교육의 기능, 친목 및 회연의 기능, 조상숭배의 기능, 생활철학의 기능 등 제 영역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현대사회 제례의 기능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가정의 종교가 불교인 경우 타 집단에 비해 현대사회 제례의 기능인지도는 높았다.

이는 주부들 대상의 연구(김인옥, 1997)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부분이었다.

성별에서는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에서 남녀 학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효 및 교육의 기능, 조상숭배의 기능, 생활철학의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이 더 높았다. 이는 남학생들의 제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본질적이고 전통적 규범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한편 제례의 기능과 연령, 출생순위, 가족형태는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3)제례 행례 변인별 제례의 기능

제례 행례 변인별 제례의 기능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8> 참조) 제사 형식에서는 불교식으로 제사지내는 경우 전반적인 제례의 기능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제사 종류에서는 기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경우 효 및 교육의 기능, 친목 및 회연의 기능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그 밖의 제사 주관자가 종가의 종손일 때 친목 및 회연의 기능이 높았다. 그리고 본인 가정에서의 제사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친목 및 회연의 기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효 및 교육의 기능, 조상숭배 기능, 생활철학의 기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인 가정에서 제사를 수행하는 경우 제 영역의 기능인지도는 높았다.

제사 수행범위에서는 조상숭배와 생활철학의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제사수행범위가 높을수록 조상숭배기능과 생활철학 기능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제사 참여범위에서는 기능요인 전 영역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참여범위가 높을수록 기능인지도도 높았다. 즉 대학생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범위가 높을수록 현대사회 제례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전통 제례의식 및 수행과 제례의 기능과의 관계

전통제례 의식 및 수행과 기능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대학생의 전통 제례의식과 수행에 따른 제례의 기능은 전 영역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제례의식 및 수행의 정도가 높을수록 기능 인지도는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제례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갖고 참여하며 수행하는 집단에서 현대사회 제례의 중요성을 보다 의미 있

<표 9> 전통 제례의식 및 수행과 기능의 관계

변인	집단	제례의 기능							
		효 및 교육		친목 및 회연		조상숭배		생활철학	
		M	D	M	D	M	D	M	D
의식	상	4.29	A	4.37	A	3.70	A	3.94	A
	중	3.53	B	3.70	B	2.98	B	3.15	B
	하	2.27	C	2.80	C	1.99	C	2.30	C
	F값	190.20***		73.97***		79.77***		111.92***	
수행	상	4.19	A	4.31	A	3.79	A	3.88	A
	중	3.66	B	3.82	B	3.15	B	3.29	B
	하	2.98	C	3.30	C	2.45	C	2.74	C
	F값	67.70***		63.17***		60.97***		63.44***	

***P<.001

게 지각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친목 및 회연의 기능과 효 및 교육의 기능 인지도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 영역에서의 긍정적 반응을 볼 수 있었다.

V. 논의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제례에 대한 전통적 의식과 수행을 알아보고, 그 기능에 대하여 1차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후속 조사로 연구 결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반영된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조사의 연구결과 젊은 세대들이 제례에 대한 의식과 수행의 변화를 요구하며, 형식적인 제례규범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사례조사에서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형식을 차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 추모의 의미만 있으면 된다.”(사례3) “부모님, 조부모님 제사는 지낼만하고 그 윗대 어른은 기일에 묵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사례5) “정해진 형식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성을 다해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사례6)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제례수행의 정도는 낮지만 제사음식에 관한 규범은 잘 지켜지고 있었다. 사례조사에서 학생들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양말을 갖추어 신는 정도의 제례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사음식을 먼저 먹거나 손대지 않아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제사 옷이 따로 준비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단지 세탁한 깨끗한 옷과 양말을 갖추어 신는다. 제사음식을 먼저 먹거나 하지 않는다’ (사례3, 7, 8, 12) ‘만약 제사지내기 전 저녁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제사음식에 손대지 않고 별도로 식사준비를 해서 먹는다.’ (사례6, 7, 13, 14) ‘준비한 제수 중 제사에 쓰여질 음식만 따로 담은 후 남은 음식을 먹는다’ (사례1)

사례에서 대학생들은 의복보다는 음식규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사 시 집안 일을 돕거나 제사준비에 참여하는 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제사시 대학생들의 일손도움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제례시 주로 청소와 잔심부름, 음식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전 부치기, 잔심부름, 청소, 뒷정리(사례2, 3)뿐만 아니라 상차리기, 나물 다듬기, 음식 담기, 시장보기(사례5, 6, 7)등에 참여하였고, 남학생들은 물건 나르기, 상 옮기기, 아이돌보기, 청소, 심부름 (사례8, 9, 10)등을 주로 하였으며 시장보기(사례13)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여자 형제가 없는 경우 어머니를 도와 전 부치기, 적 준비하기, 나물 다듬기, 밤 깎기(사례11,12)등의 도움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 대학생 본인의 종교나 집안의 종교는 제례 의식이나 수행, 그리고 제례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조상이 우리 가정 안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禮)일 뿐이다. 술 따르고 절하고는 안한다. 어른들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제삿날이 되면 불편하다”(사례9) “큰아버지께서 목사이시니까 추도예배를 드린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조상에 대해 잊지는 않는다. 그러나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사를 통해 조상을 신격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돌아가신 분을 기억할 뿐이다.”(사례10)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집안내 종교가 기독교로 추모식을 행하는 경우 제례를 보는 시각과 의미는 달랐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제례는 종교관과 맞물려 나름대로 경계를 구분 짓고 있었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제례에 대한 의식과 수행, 그리고 제례의 기능 인지정도에 있어 그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한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제사를 통해서 이를 느낀다.”(사

례8)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 주신 부모님께 최소한의 예의로 제사를 지내드리고 싶다. 제사가 중요하다 제사를 지내면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해 주신다. 그리고 조상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사례11)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하시던 대로 나도 제사를 지낼 것이다”(사례12)

실제 사례 조사에서 제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미래 본인들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여 지내게 되었을 때 보고들은 바대로 실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반응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사를 지낼 상황이면 지낸다. 친정 부모님 제사도 지내고 싶다. 종교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친구 집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종교를 떠나 자기 조상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사례7) “제사 음식 준비가 번거롭다. 안 먹는 음식준비는 과소비라고 생각한다. 바꾸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께서 힘들다고 하신다. 제사는 너무 많고, 일할 사람은 없고...”(사례5)

4대 봉사(奉祀)를 하여 제사가 연중 10회 이상인 두 집안의 사례에서 상반된 견해를 읽을 수 있었다. 사례5의 경우 제사음식준비에 대한 번거로움과 고충을 이해하는 딸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여학생이 느끼는 제사수행은 남학생 보다 현실적이었다.

넷째, 제례의 기능에 관한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현대사회에서 제례가 친척간의 친목 및 회연의 기능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친척들이 모일 기회가 없는데, 제사로 인해서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자주 만날수록 편하고 유대감이 형성된다”(사례1, 2, 5, 6, 7, 8, 9, 12, 13, 14)

사례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오늘날 제례가 가족 및 친척간 친목과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으며, 제례의 친목 및 회연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다섯째, 본인 가정에서 직접 많은 제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인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자녀로서 제례를 보는 반응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에 대해 기억하게 한다. 그

리고 자손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사례6) “제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가족이니까 기일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사례7)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사를 통해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낀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다”(사례8)

본인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학생들은 사례에서 제례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조상숭배의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먼 조상보다도 생존시 뵈었던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기일을 기억하고 제사지내는 것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아들들만이 큰집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근래 들어 제사 참여의 기회가 없었던 여학생들의 사례와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집안의 제사 참석을 거부하는 사례 등에서는 제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볼 수 있었다.

“제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형식을 차리면서 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않는다.”(사례3, 4)와 “조상에 대한 예(禮)이지만 제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사례9)

이와 같은 결과들은 젊은 세대들의 제례에 대한 의식과 그 변화를 반영하고 입증하는 내용들로서 차세대 제례의 경향을 미루어 파악할 수 있는 토대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VI.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통제례 의식 및 수행 정도와 제례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제례에 대한 의식보다 수행의 정도는 낮았는데, 특히 일부 제사 형식과 절차에 있어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사음식 마련에 대한 규범은 지켜지고 있었다. 제례에 대한 전체적 반응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부계중심의 제례관이 현대사회에서도 크

게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조상숭배 의식과 뿌리의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제례에 대한 기본적 가치와 관념은 그 수행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는 남학생들에 대한 어른들의 지도 및 교육, 그리고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가진 그들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 여학생들의 제례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제수마련 시 경제적, 물질적, 신체적 부담이 심리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사례조사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연중 10회 이상의 많은 제사가 있는 가정의 제사수행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여학생은 제수마련뿐 아니라 손님 접대 시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자녀로서 대학생들이 집안 내 제사 참여의 기회가 많을수록 전반적인 제례의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제례 수행의 동기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례조사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 생존시 자신이 빈 분들에게 대한 제례수행에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제례의 교육적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교육은 참여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실천 교육에 의미를 두고 있다.

셋째, 제례의식이나 수행에서는 본인이나 가정의 종교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체로 기독교인의 경우 제례에 대한 거부와 부정적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조사에서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는 유교식 제례가 추도식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었다. 즉 헌수(獻壽)와 배례(拜禮), 제수마련이 추모예배와 친척들을 대접할 음식 마련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한국사회 기독교의 전래와 포교는 유교적 형태의 제례에 큰 영향을 끼치며 제례의 간소화 내지 변질의 근원을 밝히는 데에도 항상 그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사회 뿌리를 내린 지 150여 년이 되었다. 종교가 아닌 한국인의 문화적 코드에서 제례를 논의하고 고증하여 본다면 '한국적 기독교식 제례' 라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현대사회 제례에 대하여 대학생들은 친목 및 회연의 기능에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생활의 복잡함과 다양함으로 하루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현대인들의 집안 내 대소사 참석이 부담스러워졌다. 더군다나 자녀가 입시기간인 경우 친척간 왕래는 단절되기 일쑤이다. 그리고 친척간의 모임이 바쁜 일상을 환기시켜주는 편안함 보다는 그들 사이의 위계와 질서는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데 한계를 느끼게 하며 경직된 인간관계로 오히려 친척간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지면에 자주 오르는 이른바 '명절 스트레스'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조차 고립감을 느끼고 소외되어 있는 대학생 자녀세대에게 제례는 보이지 않는 먼 조상에 대한 추모의 기회보다 오히려 가까운 가족과 친척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세대 가정의 주인이 될 대학생들의 제례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미래 한국사회 제례에 대한 전망을 해 보고자한다.

제례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가까운 조상에 대한 제례는 봉사자가 누가 되었던 제사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남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장·차남, 딸·아들의 구분은 무색해질 것이다. 그리고 제사형식이나 음식은 가정에 따라 간소하고 다양해지며, 형식적이고 강제성을 띤 의무적 제례수행은 점차 약화되면서 조상을 기억하고 친척간 모임의 기회를 갖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사 수행시 제사음식과 손님접대로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여성들의 태도가 관건이다. 조사에서 여학생들의 제례에 대한 의식이나 수행태도는 남학생들보다 낮았고, 미래 제사수행여부에 관한 사례조사에서 그들의 응답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제수전문업체의 사회적 요구도 점차 늘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 제수마련은 자손들이 직접 손수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일반 가정에

서의 호응도는 낮지만 여성들의 제수마련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며 그 산업화 양상이 급진전 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김장생(1599). 가례집람(家禮輯覽). 영인본.
 이이(1577). 격몽요결(擊蒙要訣). 영인본.
 이재(1844). 사례편람(四禮便覽). 영인본.
 권규식의(1993). 현대 한국 종교변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이길표(1998). 전통제례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6(1), 51-63
 _____(2002). 가족자원경영학 전공자의 진로탐색을 위한 전통가정생활분야의 활성화 방안-가정의례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5(1), 1-10
 박수정(1989). 도시 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천(1986). 도시 주부의 제례 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인수(1983). 한국인의 전통적 윤리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손유미(1990). 서울시 거주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음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혜숙외(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도서출판 신정.
 이광규(1994).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_____, 김인옥(2001).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에 나타난 제례의 문헌적 비교 고찰, 생활문화연구, 15.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213-230.
 이순형(1990). 서울의 친족생활에 대한 고찰, 서울특별시 사 편찬위원회.
 이수은(1981). 영남지방 제례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우, 김명나(1990). 도시 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_____(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 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8, 숙대 생활과학연구소, 8-18.
 이현숙(1983). 제사를 통한 당대친 협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옥재(1981). 제사에 대한 부녀자의 의식구조 조사 연구.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
 지교현외(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경순(1986). 혼·상·제례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재숙 외 2인(1989). 제례에 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자원문제연구, 8, 영남대 자원문제연구소.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11월 28일 접수, 2003년 3월 6일 채택)